



러시아월드컵 여정을 끝낸 태극전사들이 각자의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대구FC의 골키퍼 조현우는 FC서울전에 '금의환향' 한다. 이승우는 팀 잔류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유럽리그로 복귀한 손흥민은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왼쪽부터 조현우, 이승우, 손흥민

소속팀 복귀 태극전사들 '선의의 경쟁'

4 K리거, 순위싸움 치열...유럽파는 시즌 준비(完)

프로축구 재개... 이승우, 팀 잔류 여부 고심
손흥민·황희찬 등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성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목숨을 잡고 조별리그를 마친 태극전사들이 짜릿한 '이변의 기억'을 품고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1승 2패를 거두 F조 3위에 오른 대표팀은 베이스캠프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K리거 선수들은 러시아에서 쌓은 정은 잠시 뒤로 한 채 다시 치열한 순위 싸움에 뛰어들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프로축구 1부리그인 K리그1은 7일 재개된다.

드컵 무대를 밟은 윤영선(성남)과 주세종(아산)은 지난달 30일부터 소속팀 경기를 치렀다. 정우영, 김승규(이상 빙셀 고베), 장현수(FC도쿄) 등이 뛰는 J리그와 김영권(광저우)이 속한 중국 슈퍼리그는 이달 중순부터 진행된다. 멕시코와의 2차전, 독일과의 3차전에서 연속 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운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유럽리그 소속 선수들은 새로운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지난 2017-2018시즌 18골을 포함해 개인 최고 공격 포인트(29개) 기록을 남긴 손흥민은 8월 11일 개막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에서 더 나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이 속한 독일 분데스리가는 8월 24일 시작한다.

생애 첫 월드컵에 나선 황희찬(잘츠부르크) 등도 새 시즌 도약을 준비한다. 이승우는 베로나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강등돼 팀에 남을지 고심하는 상황이다. 손흥민과 황희찬, 이승우 등은 두달도 남지 않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태극마크를 달 것이 유력하다. 황희찬과 이승우는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 연령대인 23세 이하이고, 손흥민은 '와일드카드'로 선발받아야 한다. 2회 연속 우승 도전을 위해 이들의 활약을 원하는 김학범 감독과 김대박로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노리는 선수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발탁이 확실시된다. 다만 아시안게임이 유럽리그 시즌 초반과 맞물리는 터라 각 선수의 소속팀만 하이라이 전제조건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43G 연속출루' 아시아 새역사

이치로와 타이 기록... 휴스턴전 2안타 2볼넷 4번 출루

'출루 장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43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하며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타이 기록을 세웠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2볼넷 1삼진으로 활약했다. 4차례 출루한 추신수는 스즈키 이치로(일본)가 보유한 빅리그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인 43경기 연속 출루에 도달했다. 또 43경기 연속 출루는 2015년 조 마위(미네소타 트윈스) 이후 아메리칸리그에서 처음 나왔다. 현역 선수 최장 연속 출루는 조이 보토(신시내티 레즈)와 엘버트 푸홀스(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가 보유한 48경기다. 또한, 메이저리그 최장 기록은 테드 윌리엄스의 84경기다.



추신수는 8회말 크리스 데벤스키와 폴 카운트로 겨루다가 볼넷을 골라내 또 1루로 나갔다. 엘비스 안드루스의 안타에 2루, 아드리안 벨트레의 볼넷으로 3루까지 간 추신수는 루그네드 오도어의 1루수 땅볼에 득점했다. 추신수는 9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2루수 내야 안타로 이날 경기 네 번째 출루했다. 그러나 홈에 들어오지 못했고, 텍사스는 3-5로 패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3에서 0.286(318타수 91안타)으로 올랐다. 추신수는 경기 시작 전 6월 이달의 선수(우익수)상을 받았다. 추신수는 지난 6월 한 달간 타율 0.347, 20볼넷, 출루율 0.466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FC, 강원FC MF 최준혁 영입

빌드업 탁월한 수비형... 나상호·김민규와 호흡

프로축구 광주FC가 미드필더 최준혁(23·사진)을 임대 영입했다. 광주는 3일 강원FC로부터 미드필더 최준혁을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원 FC 출신으로 단국대를 거쳐 올 시즌 프로에 입단한 최준혁은 우월한 신체 조건(187cm/88kg)을 이용한 적극적인 몸싸움과 안정적인 빌드업, 패스가 강점인 수비형 미드필더다. 특히 2015년 나상호, 김민규와 함께 호흡을 맞춰 단국대의 전국체전 우승에 공헌했으며, 2017 덴소컵 발탁과 함께 U리그 권역우승 등을 이끌었다. 또 36만명의 추계연맹전 우승으로 2017 추계연맹전 최우수상, 한국대학축구연맹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준혁은 "강원 입단 후 부상 기회 얻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회복을 마친 만큼 경쟁을 통해 그라운드에서 하고 싶다"며 "기회를 준 광주에 보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섭 감독은 "최준혁은 공격수가 편하게 득점을 노릴 수 있도록 후방에서 든든히 지원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라며 "예전부터 눈여겨 본 선수인 만큼 광주의 중원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아정 기자 chaajung@

안용덕 교수, 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 선정

선수·지도자 폭력 근절 예방 등 공로 인정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에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안용덕(55·사진) 교수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창립 98주년을 맞아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에서 대한민국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유공자를 추천받아 부문별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안 교수는 스포츠인권 향상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 교수는 스포츠인권 상담 전문가로서 평소 선수와 지도자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각자의 역할에서 오는 갈등 요인 등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훈련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과 상담을 하는 등 교육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매진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로 활동하며



5천명이 넘는 지역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강의해 왔다. 안 교수는 현재 조선대학교체육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한국체육교육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체육발전을 위해 두루 활동하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 창립 98주년 기념식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올림픽아울)에서 열린다. 부문별 체육유공자는 이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차아정 기자 chaajung@

기사제보 227-0000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혼합경기에서 남북 '평화팀'과 '번영팀' 선수들이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통일농구, 첫 무대는 혼합경기

허재 감독, 15년 만에 북한 땅 밟아
선수단, 4경기 치르고 내일 귀환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15년 만에 통산 네 번째로 열리는 남북 통일농구에 나서는 남북 선수들의 첫 무대는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혼합경기로 출발했다. 남북 통일농구에 나선 한국 남녀 농구 선수단은 4일 오후 3시 40분부터 북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혼합경기에 나섰다. 여자부 혼합경기가 먼저 열리고 남자부가 이어진다. 이에 앞서 남녀 선수단은 오전 9시부터 합동 훈련을 통해 마지막 점검에 나섰다. 혼합경기는 남과 북의 선수가 섞여 한 팀을 이뤄 치르는 것으로 남녀부 경기가 각각 펼쳐진다. 팀 이름은 '평화'와 '번

영'으로 결정됐다. 친선의 의미가 큰 통일농구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남북 합의에 따라 국기와 국가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통일농구에 나선 남녀 선수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지난 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리카르도 라틀리프(현 대모비스)다. 태극마크를 달고 북한 선수들과 처음 어울리는 라틀리프는 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지도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며 "북측과 경기를 하는 것이 다 보니 농구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큰 관심을 두시는 걸 안다. 관심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선수들과 달리 현역 시절 이미 남북 통일농구를 경험한 허재 남측 대표팀 감독도 흥분되기는 마찬가지다. 허 감독은 2003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통일농구 선수로 참가했고, 15년이 지난 이번에는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으로 다시 북한 땅을 밟았다. 그는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교류 경기를 하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남북 관계가 점차 좋아져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류전을 북측이나 남측에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남북 통일농구 첫날 혼합팀 경기 앞서 "우리 리그 올스타전처럼 승패보다는 팬들이 보기에 맛있는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 전날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훈련에 나선 여자 선수단의 '베테랑 가이드' 박혜진(우리은행)도 "승패를 떠나 최대한 좋은 분위기에 다치지 않고 즐기면서 진짜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남녀 선수단은 4일 혼합팀 경기에 이어 5일 북한 선수단과 남녀부 친선전을 치르는 것으로 이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6일 남측으로 귀환한다. 5일 열리는 남녀부 친선전은 오후 3시부터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여자부 경기부터 열린다.

/연합뉴스